

# 땅끝까지 전해진 계시 복음의 실상... “희망의 시작이 되는 해남교회 되길”

신천지 해남교회,  
베드로지파 국내 7번째 지교회로  
승격... 지난 23일 봉헌예배 진행

성도 3000여 명 해남교회 현장에서  
새로운 시작과 부흥 응원



| 지난 23일 신천지 해남교회 봉헌예배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설교하고 있다.



| 지난 23일 신천지 해남교회에서 봉헌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최남단에 자리한 ‘땅의 끝’이자 ‘희망의 시작지’라는 지역적 상징성을 가진 해남에 새로운 계시 복음의 역사가 그 시작을 알렸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베드로지파 해남교회(담임 강승원·이하 신천지 해남교회)는 광주·전남 베드로지파의 국내 7번째 지교회로 출범을 알리며 지난 23일 봉헌예배를 진행했다.

신천지 해남교회는 목포교회에 편입돼 전남 서남부 지역인 강진·영암·진도·완도의 복음 사역을 담당해 왔다. 현재 1012 명의 성도가 있는 곳으로 성장해 광주·목포·여수·순천·송하·광양에 이어 올해 1월 7번째 국내 지교회로 승격 승인을 받았다.

호남권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해남은 한반도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의 시작과 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국토 순례를 시작하기도, 마치기도 하는 곳이다. 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경 구절과 잘 부합하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많은 교회가 선교사역에 큰 의미를 두는 곳이다. 이날 봉헌예배가 드려진 해남교회 현장은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봉헌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성도 3000여 명의 환호와 함성으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만희 총회장은 봉헌예배 현장을 찾아 지교회 승격을



| 지난 23일 신천지 해남교회 봉헌예배에서 유재욱 베드로지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부흥을 기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총회장은 오늘날 재림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뤄져 나타난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전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힘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총회장은 먼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 다 이뤄졌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를 것을 또 약속하셨다”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은 계시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시록의 예언은 기록된 그대로 가감 없이 이뤄지며 이를 때는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 이뤄져 나타난 실체는 그것을 본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실상의 시대에 이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회장은 목회자와 신양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서 “지금은 실체까지 나타난 진짜배기 진리가 있다. 그러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이라면 믿어야 하고 이 말씀으로 다시 나아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총회장은 성도들을 향해 “말씀대로 신앙하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자”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은 신양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고 당부했다.

이날 해남교회 한 성도는 봉헌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시골 해남 땅끝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꿈같은 일이 이뤄졌다.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 신양인이 되고, 교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유재욱 지파장은 해남교회 성도들에게 “해남은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다. 신양인이라면 알파(시작)와 오메가(끝)의 의미를 알 것”이라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우리가 깨닫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는 해남교회가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강승원 담임강사는 “이렇게 해남교회를 위해 응원하고 기도해줘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면서 “말씀에 걸맞은 빛 된 행실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전하며 더 성장하는 해남교회가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지난 23일 이만희 총회장과 유재욱 지파장, 지교회 담임강사들이 신천지 해남교회에서 봉헌예배 킷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 신천지 해남교회 전경